

現在 우리나라 가톨릭 사제복에 나타난 象徴性 研究

김 회 선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A Study on the Symbols of Ritual Dress in Korean Catholic Church

Kim, Hee-Seon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Han Yang University

目 次

Abstract	3. 역할의 象徴
I. 序 論	4. 지위의 象徴
II. 理論的 背景	5. 상황의 象徴
III. 가톨릭 사제복에 나타난 象徴性	6. 전례일의 종류 및 특성의 象徴
1. 宗教的 理念 및 가치관의 象徴	IV. 結 論
2. 신분의 象徴	參考文獻

Abstract

This research studied the classification and meanings of symbols on the clothes of the Korean catholic priest.

The results are as follows.

- 1) Symbol of religios spirits and values.
- There are many spirits of crist which priest requir to keep and meanings of innocence.
- 2) Symbol of status
- served to symbolize the conscious change from earthy to ordaned man.
- 3) Symbol of role
- differentiate between the role of priest and aid-priest.
- 4) Symbol of position(or rank)

- indicate the position of priests in catholic church
- 5) Symbol of situation
- 6) Symbol of ritual ceremony
 - characterized the ritual ceremony

I. 序 論

Leslie A. White는 人間과 동물을 구별 지을 수 있는 근본적인 차이를 인간만이 象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데 두었다. 즉 人間만이 外界에 있는 사물 및 사건들에 意味(meaning)를 부여하고 또한 부여된 의미들을 포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의미를 부여하고 부여된 의미를 포착하고 이해하는 행위를 象徵行爲(symboling)라고 불렀으며, 상징행위의 산물을 象徵物(symbolate)이라고 불렀다¹⁾.

人間이 만든 象徵物中 대표적인 것의 하나가 言語인데, 언어는 말로 표현하는 言語와 無言의 言語로 나눌 수 있다. 服飾은 시각적이며 감촉할 수 있다는 특수성을 이용하는 無言의 言語中의 하나로 身體的 보호(protection)와 같은 어떤 물리적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착용자의 연령, 성별, 직업, 국적, 사회계층, 신체적 특징, 가치관, 기분, 태도, 그가 처해 있는 상황 등을 나타내 주는 無言의 意思 傳達體(non-verbal communicator)로써 사용되기도 한다.

宗教는 보이지 않는 신과의 관계 및 영혼의 차원과 같은 추상적 개념들을 다루는 것으로 상징적 표현을 많이 하는 것중 하나이다. 특히 특정 宗教의 성직자가 입는 성직자복은 宗教의 意味 및 가치관을 可視的으로 나타내려는 뚜렷한 目的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그 자체에 많은 종교적 의미와 암시를 상징하고 있으며, 신분, 품위, 제사의 거룩함과 성스러움, 종교집단 속에서의 개인의 역할 및 지위 그리고 상황 등을 상징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宗教服飾中 人間の 歷史와 함께 시작되어 오랜 전통을 가진 가톨릭 敎회의 사제가 敎회의 규정에 따라 착용하는 복장인 典禮服은 더욱 위의 상징적 요소들을 뚜렷이 내포하고 있으리라고 본다.

服飾을 意思 傳達體로 사용하는 無言의 커뮤니케이션(non-verbal communication)에서 입은 사람(wearer)과 보는 사람(observer)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징적 상호작용(symbolic interaction)을 위해서는 입는 사람(wearer)이 의도하고자 하는 意味를 보는 사람(observer)이 바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必要한데²⁾ 가톨릭 사제복은 敎회로 부터 이미 뚜렷한 意味를 부여 받은 상태라 볼 수 있으므로 보는 사람인 우리는 사제복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정확히 압으로써 상호 작용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本 研究는 현재 우리나라 가톨릭 사제들이 입는 典禮服의 상징적 요소를 考察하여 典禮服이 나타내는 상징의 종류를 분류하고 그 意味가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目的이 있다.

1) 이문웅, 「Leslie A. White의 文化學」, 인물과 사상 p.190.

2) Susan B. Kaiser(1985),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and Personal Adornment*,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p.184.

II. 理論的 背景

상징(symbol)에 대한 論議는 많은 인류학자들과 사회 심리학자 그리고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다른 측면으로 研究되어 왔다.

이를 토대로 학자들은 의복을 단순한 물질(object)이 아닌, 입고 있는 사람의 여러가지 특성 및 상황을 의미하는 무언의 의사전달체로 보아 의복이 나타내는 상징에 대해 理論적으로 체계화 시켰다.

Horn과 Gurel은 “의복은 시각적 혹은 비언어적 상징을 사용함으로써 의사를 전달하는 無言의 言語 중의 하나로 어떤 사람이 입고 있는 의복은 그 사람의 성격, 역할 및 지위, 연령, 성별 그리고 상황을 상징한다”³⁾고 하였다.

L. Bickman은 「Clothes makes the Person」이라는 論文에서 “의복은 사회적 신분, 직업, 성별, 연령, 인종, 신체적 특징 등을 파악하는 단서를 준다”⁴⁾고 하였다.

Stone(1962년)⁵⁾은 의복은 정체감(성별, 연령, 직업, 사회 경제적 지위), 가치관, 기분과 태도, 상황 등을 상징한다고 지적하였다.

本論文은 위에서 언급한 服飾의 상징이론을 근거로 하여 가톨릭 사제의 전례복에 나타난 상징성을 분류하고 그 意味를 파악하려고 한다.

III. 가톨릭 사제복에 나타난 象徴性

1. 宗教的 理念 및 가치관의 象徴

초기 교회에서는 평신도나 성직자의 복식상의 구별이 없다가 AD 4세기쯤부터 사제가 제사를 드릴 때 입는 典禮服을 규정하여 입기 시작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가톨릭이 傳來된 초기에는 한복을 입다가 자유로운 전교 활동이 시작되었던 1887년 이후 부터 서양의 典禮服을 본따 착용하기 시작하여 그 시대의 감각에 적합하도록 여러 변화를 거쳐 오늘날의 服飾의 종류와 형태로 정착되었다⁶⁾.

사제들이 전례의식(미사)을 집전하거나 기타 聖務를 행할 때 착용하는 祭服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수단, 개두포, 중백의, 장백의, 띠, 재의, 법의, 영대, 갑바, 주교관, 장갑, 샌달과 양말 및 지팡이, 반지 등이 있는데 이중 수단, 개두포, 장백의, 띠, 재의, 법의, 영대 등에는 가톨릭의 종교적 理念과 가치관을 나타내는 고유의 상징적 의미가 부여되어 있었다. 따라서 성직자로 하여금 그 옷을 착용할 때 종교적 이념을 되새기고 강화하는 구실을 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3) Marilyn J. Horn /Lois M. Gurel, *The Second Skin*, Boston:Houghton Mifflin. pp.158~177.

4) 李仁子, 「服飾 社會 心理學」, 수확사, p.27(재인용).

5) G. Stone(1962), *Appearance and the Self*. In A. Rose, ed. *Human behavior and Social Process*. Boston:Houghton Mifflin.

6) 孫世姬(1977), 「가톨릭教 典禮服에 관한 研究」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산업디자인과 석사학위논문, pp.7~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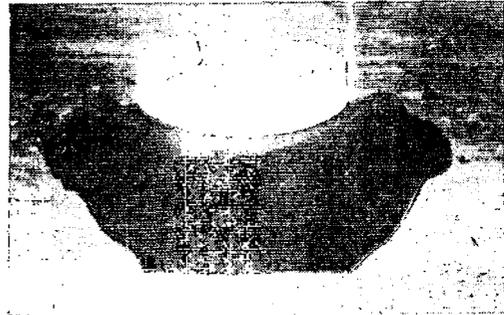
1) 수단(Soutan)의 상징성

학사(신학대학 1~4학년), 부제(신학대학 5·6학년), 사제들이 모두 입을 수 있는 성직자의 평상복이다. 형태는, 로만 칼라가 달리고, 발꿈치까지의 길이이며 앞은 완전히 트여 30개 내지 40개의 작은 단추가 달려있다(사진 1·2). 의복의 색깔은 흑색, 적색, 진홍색, 흰색이 있다.



<사진 1> 수단

수단에는 하느님, 이웃,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 자신을 바치고 속세를 떠났으며, 속세로부터 온 몸을 가린다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 즉 수단은 자신의 속세적 존재를 완전히 포기하며 무조건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함을 상징하며 기독교의 봉사의 정신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검정색은 땅을 상징하는데, 항상 모든 사람이 그 위를 밟고 지나가고, 원하지 않는 잡다한 쓰레기를 모두 버리는데도 불구하고 땅은 조용히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모든 쓰레기를 부패시켜 변화시키고, 부패로부터 생명과 새로운 창조의 가능성으로 바꿀 힘을 내포하게 됨을 의미한다^{7,8)}.



<사진 2> 로만 칼라

의미한다^{7,8)}. 또한 수단에 달려있는 로만 칼라(Roman Collar)는 독신과 정결, 성직자의 신분, 그밖에 로마 가톨릭교회에 예속되어 있음을 상징한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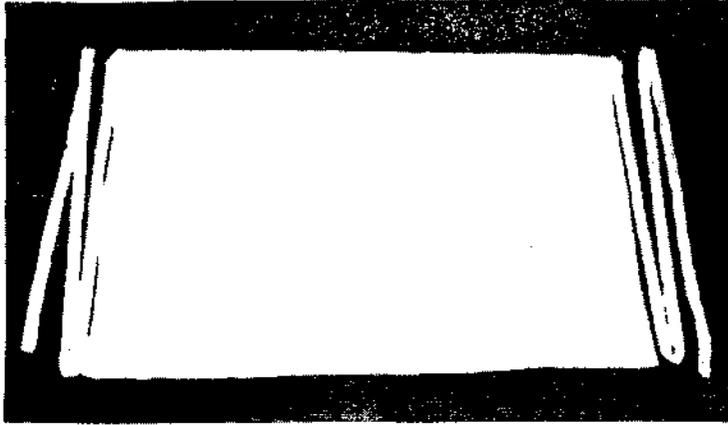
2) 개두포(Amictus)의 상징성

성예복 착용 순서에 있어서 제일 속에 입는 흰색의 장방형 천으로, 양쪽에 긴 끈이 달려 있

7) 최상범(요셉) (1985), 「전례복의 상징에 대하여」, 「나루터」 창간호 전주교구신학학회, p.30.

8) 문선구(1985), 「수단이 주는 상징적 의미」, 「나루터」 창간호, p.40.

9) 최상범(요셉), op.cit., p.30



<사진 3> 개두포

다(사진 3). 개두포는 보통은 수단위에 입는데, 머리 위를 스쳐 어깨 위에 걸치고, 수단의 칼라를 쓴다. 개두포 겉에는 장백의를 반드시 착용하여 개두포를 감춘다.

개두포 착용시 사제는 “주여! 내 머리에 투구를 씌우사 마귀의 공격을 막게 하소서”¹⁰⁾라고 기도하는데, 개두포는 마귀로부터 보호해줄을 의미하는 구원의 투구라는 상징이 부여되어 있다(에페소서 6장 17절)¹¹⁾.

3) 장백의(Alba)의 상징성

장백의는 사제가 미사 집전시 개두포 위에 입는 것으로 꼭 맞는 소매가 달리고, 발끝까지 오는 긴 백색의 옷이다(사진 4).

장백의를 입을 때 사제는 “주여, 나를 결백하게 씻으시어 내 마음을 조찰케 마시고 어린 양의 피로 결백하게 되어 당신을 섬기게 하소서”라고 기도한다¹²⁾.

장백의에는 육신과 마음 또는 영혼의 순결이라는 상징성이 부여¹³⁾되어 있는데, 즉 白色의 장백의를 입음으로써 사제가 미사정제 때 가져야할 육신과 영혼의 순결을 얻을 수 있으며 또한 육신과 영혼의 결백을 다짐함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4) 띠(Cinctura)의 상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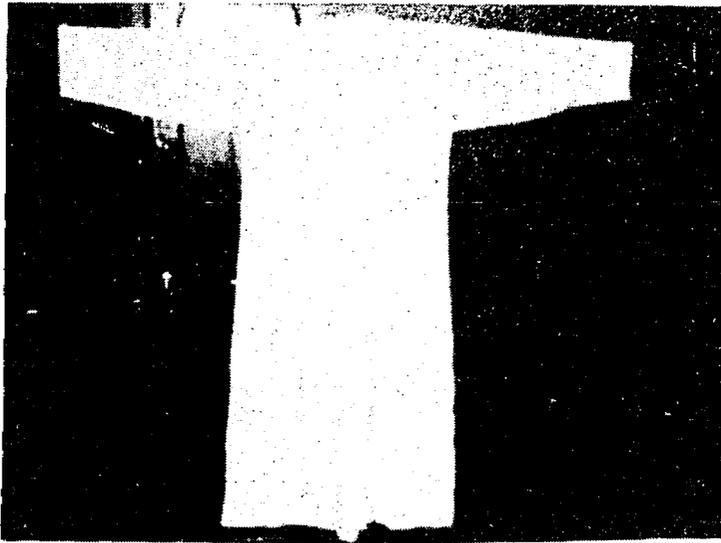
장백의가 끌리거나 벌어지지 않도록, 즉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장백의를 걸어 올려 매는데 사용되는 것이다. 길이는 3~4m이며 양쪽 끝에 술이나 고리가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백색이지만 겉옷(제의색)과 동색으로 사용하기도 한다(사진 5).

10) 안성노(1985), 「전례복과 상징」, 가톨릭 신학대학 신학과 학사학위논문, p.17.

11) 최윤환(1982), 「간추린 미사해설」, 가톨릭출판사, p.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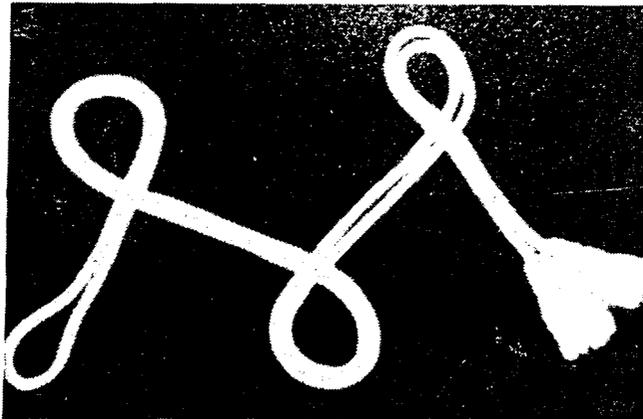
12) 최상범, op.cit., p.31.

13) 최윤환, op.cit., p.17.



<사진 4> 장백의

사제는 띠를 매면서 “주여, 조찰함의 띠로 나를 매어 주시고 내안에 사욕을 없이 하시어 절제와 정결의 덕이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한다¹⁴⁾. 띠에는 악마와의 투쟁, 참고 견디는 극기의 중요성을 각성케 한다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으며, 일이나 싸움에서의 결의를 상징한다¹⁵⁾.



<사진 5> 띠

14) 최상범(요셉), op.cit., p.32(재인용)

15) 최윤환, op.cit., p.17.

5) 영대(Stola)의 상징성

사제들이 미사나 기타 성무(고백성사, 성체강복, 병자성사 등)를 집행할 때 입는 기본 복장으로, 목에 걸쳐 무릎까지 늘어지게 매는 띠의 일종이다.

2.5m의 길이에 9cm정도의 넓이로 양끝이 조금 넓으며 보통 양쪽 끝에 十字架 수를 놓고 그 끝에는 술장식을 한다. 색은 백색, 적색, 녹색, 자색, 흑색 및 장미색이 있다(사진 6).

사제는 영대를 착용할 때 “주여, 주께 봉사하기에 합당치 못하나 원죄의 타락으로 잃은 불사불멸의 영대를 내게 도로 주시어 주의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한다¹⁶⁾. 영대는 하느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제직에 부여된 거룩함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의 품위있고 온유한 명에라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 즉 영대는 주로 사제에게 부여된 직책과 의무를 상징하며, 그 모습에서 그리스도가 어깨에 매었던 십자가를 상징하기도 한다^{17,18)}.



<사진 6> 영대

6) 제의(Casula)의 상징성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입는 半袖원형의 케이프형태의 옷이다. 주로 앞 가슴과 등에 십자가 수를 놓으며, 색깔은 영대와 같이 여섯가지 색이 있다(사진 7).

제의(casula)라는 용어는 원래 작은 집이라는 뜻이며, 과거에는 모든 것을 포용하는 사랑의 옷, 순결의 옷이라고 불렸으며, 제의의 등뒤에 놓여진 십자가는 그리스도가 十字架를 메고 「끌고다」산에 올라간 수난을 의미하며, 또한 앞의 십자가는 사제 자신의 십자가를, 뒤의 십자가는 이웃사람의 십자가를 짐을 의미하기도 한다¹⁹⁾. 사제는 제의를 입을 때 “주여, 너 이르시되 내 명에는 달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신지라 나로 하여금 네 성총을 얻도록 이를 잘 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한다²⁰⁾. 즉 제의는 사랑, 순결, 그리스도의 명예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다.

7) 법의(Dalmatica)의 상징성

미사때 副祭가 입는 겹옷으로 부제는 제의를 입지 못하기 때문에 제의 대신 제의와 같은 용도로 법의가 착용된다. 또한 특별한 儀式에서는 主教가 祭衣 속에 입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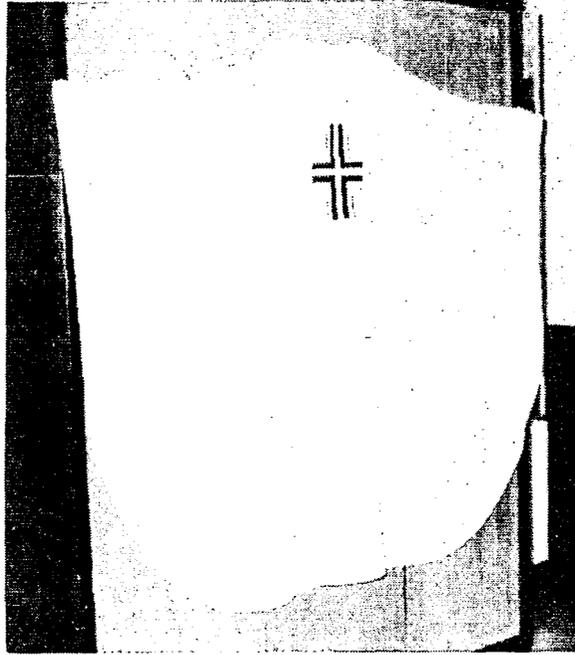
16) 안성노, op.cit., p.22(제인용)

17) 최상범, op.cit., p.34.

18) 최윤환, op.cit., p.18.

19) 최상범, op.cit., p.32.

20) 안성노, op.cit., p.20.



<사진 7> 제의

모양은 T字型으로 주로 앞·뒷면에 어깨부터 단까지 두 줄 무늬장식이 있으며 색깔은 제의와 같다(사진 8).

법의의 형은 커다란 십자가를 연상시키며, 정의의 옷, 기쁨의 옷이란 의미를 갖고 있다^{21,22)}. 이로써 법의는 십자가, 정의, 기쁨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2. 신분의 象徴

祭服을 입음으로써 세속인에서 성직자로의 신분 변화를 자신 또는 타인에게 드러내 준다. 즉 神性을 전달하는 능력있는 사람, 권위, 지도력, 신성함, 깨끗함, 순수함을 갖는 사람으로의 신분을 象徴해 준다.

3. 역할의 象徴

미사를 드릴 때 사제의 역할은 미사를 주관하는 주사제와 보조해 주는 보조사제로 그 직무가 나뉘어지는데, 의복착용 상태를 보고 직무 수행에 따른 사제의 역할을 인지할 수 있다. 미사를 주관하는 주사제는 수단-개두포-장백의-띠-영대-제의의 순으로 의복을 착용하고

21) 최상범, op.cit., p.33.

22) 안성노, op.cit., p.21.

있으며, 보조사제는 수단-중백의-영대만을 착용하고 있다(중백의:장백의를 조금 짧게 변형한 것. 무릎까지 길이에 소매가 넓고 소매끝과 아래단에 수를 놓거나 레이스로 장식한 옷)

23)

4. 지위의 象徴

지위란 권위의 서열 혹은 등급에서의 개인의 위치를 말한다²³⁾.

가톨릭교에서는 전례복은 모두 입을 수 있거나 그 일부만을 입을 수 있는, 사제 및 사제가 되기 위해 관련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서열을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교황(敎皇)

↓

추기경(樞機卿)

↓

대주교(大主教)

↓

주교(主教)

↓

사제(司祭) : (신부 서품을 받은 자)

↓

부제(副祭) : (신학대학 5·6년생으로 신부서품을 받기전의 학생)

↓

수도자 : (신학대학 1~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

미사집전은 못하고
독서직이나 시종직
만을 할 수 있다.

1) 服從에 의한 지위의 象徴

지위에 따라 입을 수 있는 服飾의 종류가 규정되어 있다. 즉 사제는 典禮時 개두포, 장백의, 띠, 영대, 제의만을 입을 수 있으며, 主教는 사제가 입는 服飾의 종류 외에 주교용 신발, 장갑, 십자가가 달린 지팡이(pastoral staff), 반지(pontifical ring), 주교관 등을 착용할 수 있다. 主教보다 지위가 더 높은 대주교와 교황은 주교의 典禮服 위에 팔리움(Pallium)을 더입는다. 또한 부제는 사제의 典禮服을 주로 입을 수 있는데, 이때는 만드시 제의 대신 법의(달마띠가)를 착용해야 한다. 따라서 여러 지위의 성직자가 함께 모여 어떤 의식을 행할 때, 그가 입고 있는 服飾의 종류로써 그 지위를 구별할 수 있다(팔리움 : 영대와 비슷한 형태의 띠로 교황이 집전하는 大禮미사와 대주교가 집전하는 대축일에 제의위에 맨다).

2) 수단(Soutan)의 색 차이에 의한 지위 상징

수단의 색은 백색, 적색, 자색, 흑색이 있는데, 백색은 교황, 적색은 추기경, 자색은 주교,

23) 최윤환, op.cit., p.16

24) Marilyn J. Horn/Lois M. Gurel, op.cit., p.170.

흑색은 주로 일반 사제가 입도록 규정되어, 수단의 색을 보면 그 지위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교황, 추기경, 주교, 사제 모두 백색의 수단을 입는 것도 허락되어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띠를 자기 색깔로 매야 함으로 지위 구별이 가능하다.

3) 영대 착용 方法에 따른 지위 상징

과거에는 영대 매는 方法이 부제, 일반 사제, 그리고 主教이상의 성직자에 따라 달랐다. 즉 부제는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팔뚝으로 내려 띠로 매며, 일반 사제는 가슴에서 十字로 엇비슷하게 하여 띠로 매었으며 主教이상은 전권을 가졌다는 표시로 평행하게 내려 띠로 맨다.

그러나 현재는 사제 역시 主教와 같은 方法으로 영대를 착용함으로, 부제와 사제 이상의 지위만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5. 상황의 象徴

가톨릭 성직자의 종교적 생활은 크게 미사집전 및 고백성사, 성체강복, 병자성사 등과 같은 미사외의 특별한 예식을 행하는 儀禮生活과 日常生活로 나눌 수 있는데, 성직자가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착용 服飾의 종류와 服飾의 색깔이 달라진다.

평상시에는 수단이나 끌레즈망(양복속에 상의만 수단 모양으로 입는 약식 복장)을 입는다.

미사집전시에는 수단-개두포-장백의-띠-영대-제의를 입으며, 미사가 끝나면 수단 만 착용한다.

고백성사, 성체강복, 병자성사, 그리고 미사집전은 안하면서 강론만 할 때는 수단 위에 영대만 착용하는데, 고백성사와 병자성사 때에는 보라색(자색) 영대를, 성체 강복 때에는 흰색 영대를, 그리고 강론 때는 그날에 해당하는 제의색(전례일의 상징 참조)과 같은 영대를 맨다.

6. 전례일의 종류 및 특성의 象徴

가톨릭敎에서 1년 365일은 거룩한 절기들과 축일들로 나뉘어져 있는데, 즉 부활주일을 정점으로 주님의 탄생과 생애, 죽음과 부활의 신비를 나타낸다. 따라서 典禮는 그날의 축일 또는 절기상의 특징을 기념하면서 이루어진다. 이때 그 축일 및 절기의 성격에 따라 典禮服 中 제의(부제는 법의)와 영대의 색이 달라진다. 즉 그 전례일이 가지는 意味 및 정신을 색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상징적 의미를 통해 효과적으로 나타내었다.

1) 기쁨과 환희의 의미가 있는 전례일의 상징

부활절, 성탄절, 주님의 축일(수난에 관한 축일제외), 성모의 축일과 기념, 세자요한, 사도 요한, 사도베드로의 주교좌, 사도바오로의 개종 등의 성무일도와 미사때 그리고 결혼식과 영세를 위한 의식때 백색의 제의와 영대를 착용한다. 白色은 하느님이 친히 입으신 色(묵시 3, 4·18이하)으로 영광과 결백, 기쁨을 象徴한다. 따라서 축일의 환희가 표현되어야 하는 전례일에 사용되며, 金色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

2) 사랑과 피의 의미가 있는 전례일의 상징

주의 수난(성지)주일, 성금요일, 성신강림, 십자가 현양축일, 사도들과 복음사가들의 축일, 그리고 순교자축일에는 적색의 제의와 영대를 착용한다. 적색은 뜨거운 사랑과 피를 상징하

므로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한 순교자들의 축일에 주로 사용한다.

3) 특별한 축일의 특징이 강조되지 않는 전례일의 상징

연중 주일 즉 주의공현후 주일부터 사순절전까지, 성신강림후 주일부터 대림시기전까지의 연중 성무일도와 미사때는 녹색의 제의와 영대를 착용한다.

가톨릭교회에서는 녹색은 보편적인 색으로 나뭇잎의 싹, 植物의 成長, 열매의 希望, 敎人들의 生活과 소망을 상징하는데 쓰인다. 특히 녹색은 교황 인노첸시오께서 '중간색'이라하여 교회에서 특별한 축일의 특징이 강조되지 않는 보통주일에 사용된다.

4) 회개의 의미가 있는 전례일의 상징

대림절, 사순절, 위령성무일도와 미사에는 보라색(紫色)의 제의와 영대가 사용된다. 보라색은 색 자체가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아 회개의 뜻을 표현한다. 따라서 보라색은 죄에 대한 뉘우침과 그리고 고행과 금식을 시행해야 하는 날들에 사용되는 것이다.

5) 슬픔과 죽음의 의미가 있는 전례일의 상징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죽은 사람을 위한 위령미사에는 흑색의 영대와 제의를 입는데, 이는 흑색이 슬픔과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외에 장미색은 보라색의 슬픔과 백색의 기쁨에 대한 중간색으로, 대림시기와 사순절의 기간에 성탄과 부활의 서광을 앞두고, 좀 기뻐하며 휴식한다는 의미로 '기뻐하라 주일(대림 3주일)'과 '즐거워하라 주일(사순4주일)'에 사용된다. 이때 보라색과 백색의 중간색인 장미색 영대와 제의를 입는 것은 그 기쁨이 완전치 못하기 때문이다.

IV. 結 論

가톨릭 사제 服飾에 나타난 상징성은 크게 ① 종교적 理念 및 가치관의 象徴 ② 신분의 象徴 ③ 역할의 象徴 ④ 지위의 象徴 ⑤ 상황의 象徴 ⑥ 전례일의 종류와 특성의 상징으로 분류되었다.

1. 종교적 理念 및 가치관 象徴

각종의 衣服에는 가톨릭교의 理念 및 가치관을 나타내 주는 상징적 의미들이 부여되어 있었다. 상징적 의미들을 크게 나누어 보면 첫째, 거룩하고 초자연적인 전례를 수행할 때 입는 옷이므로 전례시 사제가 더욱 지켜야 할 사항들, 즉 육신과 영혼의 순결과 결백을 의복을 통해 강조하였으며, 둘째,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지켜야 하는 그리스도 정신, 즉 신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봉사정신을 의복을 통해 나타내었다.

2. 신분의 象徴

속세인에서 성직자로의 신분변화를 祭服을 착용함으로써 나타내준다.

3. 역할의 象徴

典禮時 사제는 주사제와 보조사제의 두 역할로 직무가 나뉘어질 때가 있는데, 의복 착용 상태를 보고 사제의 역할을 알 수 있다.

4. 지위의 象徴

권위의 서열, 등급에 따른 개인의 위치를 전례복 중 착용할 수 있는 衣服의 종류와 수단의 색깔의 차이 및 영대 착용방법의 차이로써 구별지을 수 있었다.

5. 상황의 象徴

미사집전과 고백성사, 성체강복, 병자성사 등의 특별예식 및 평상시 상황에 따라 의복의 색깔 및 착용服種이 달라진다. 즉 입고 있는 의복 색깔과 착용의복 종류로써 사제가 놓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6. 전례일의 종류 및 특성 상징

전례일은 거룩한 절기들과 축일들로 나누고 있는데 典禮服中 제의(부제는 법의)와 영대의 색깔을 다르게 함으로써 그날의 전례집전 내용이나 성격을 상징해 준다.

參考文獻

1. 한국가톨릭대사전 편찬위원회, 「한국가톨릭대사전」, 한국교회사 연구소, 1985.
2. 최윤환, 「미사해설」, 가톨릭출판사, 1982.
3. 이기병, 「알기쉬운 미사해설」, 가톨릭출판사, 1983.
4. 이문웅, 「Leslie A. White의 文化學」, 인물과 사상.
5. 강혜원, 「의상 사회 심리학」, 교문사
6. 이인자, 「服飾 社會 心理學」, 수학사
7. Alison Lurie 저, 유태순 역, 「衣服의 言語」, 경춘사
8. 최창무, 「사제단의 약사와 복장의 변천」, 신학전망(13호), 1971.
9. 徐琪玉, 「제의에 관한 小考」, 가톨릭 신학대학 학사학위 논문, 1975.
10. 김명식, 「가톨릭 교회의 전례복에 대한 역사적 고찰」 가톨릭 신학대학 학사학위논문, 1980.
11. 안성노, 「전례복과 상징」, 가톨릭 신학대학 학사학위논문, 1985.
12. 최상범, 「전례복의 상징에 대하여」, 나루터(창간호) 전주교구신학회, 1985.
13. 문선구, 「수단이 주는 상징적 의미」, 나루터(창간호), 1985.
14. 오춘자, 「그리스도교의 전례복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2호, 1974.
15. 손세희, 「가톨릭교 전례복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7.
16. 김정희, 「한국가톨릭 복제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장식미술과 석사학위 논문, 1981.
17. Susan B. Kaiser,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and Personal Adornment*. New York: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85.
18. Marilyn J. Horn/Lois M. Gurel, *The Second Skin*. Boston:Houghton Mifflin
19. G. Stone, *Appearance and the Self*. in A. Rose. ed. *Human behavior and Social Process*. Boston:Houghton Mifflin, 1962.